

폭염이란?

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,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.

폭염 특보 기준

[폭염주의보]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일최고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-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

[폭염 경보] 폭염으로 인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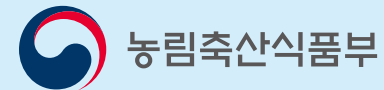
- ① 일최고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-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

사전 준비사항

- TV,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
- 창이 넓은 모자 착용하고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 보호
-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, 2인 1조로 움직이기

농작업 중 준수 사항

	논/밭 등 실외 작업장	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	
그늘	- 소음·낙하물·농기계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그늘진 장소(휴식공간)를 마련 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이 되어야 함 -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하고 의자나 돛자리, 음료수대 등 비품을 비치	-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 조치 이행 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·습도계 비치 및 확인 ② 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*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* 공기순환장치, 선풍기, 냉풍기, 이동식에어컨 등 ③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	바람
물	-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/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		물
휴식	- 폭염특보(주의보, 경보)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- 무더운 시간대(12~17시) 휴식을 부여하여 야외작업 최소화 ① 작업 시간대 조정 ②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※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, 짧은 휴식으로도 작업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.		휴식



**“자연재해 발생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
농작물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!”**

가입문의 : NH농협손해보험(1644-89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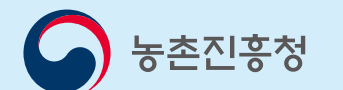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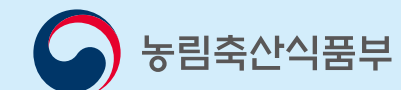
농업기술상담 | 농촌진흥청(1544-8572), 시·군농업기술센터
농업기술정보 | 농사로 누리집(www.nongsaro.go.kr)

여름철 폭염(고온)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



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고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.

작물 ▶ 시들음, 잎과 열매가 타는 증상, 각종 생리장애와 병해충 증가
가축 ▶ 식욕저하, 발육부진, 질병 등의 피해 발생



벼



- 관개용수가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통해 온도상승을 억제하고,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을 시비다.
 - (사전) 물을 깊게 관수하여 증발산량에 의한 식물체 온도 상승 억제
 - (사후) 물 흘러대기, 증산 균형유지를 위해 물떼기 지양
 - * 벼 생육 최고온도 : 감수분열기 38℃, 개화·수정기 35℃
 - * 벼 고온장해는 개화기 > 여름시기 > 감수분열기 > 유수형성기 > 최고분열기 순으로 큼

밭작물



- 짚, 부직포, 비닐 등을 이용하여 토양을 덮어주거나, 김매기를 통하여 잡초를 제거하고, 휴표면을 긁어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한다.
-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.
 - * 주 1~2회, 토양 15cm까지 관수
- 폭염 지속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, 사전에 방제를 실시한다.
 - * 어린 해충(유충) 위주로 아침 8시 이전이나 늦은 오후에 잎 뒷면을 방제한다.

채소·과수·인삼



- **[공통]** 관수 실시로 토양 적습을 유지하고 생육부진 시 엽면시비를 실시한다.
- **[채소]** 노지작물은 흑색비닐·차광망 등으로 고랑을 피복하고, 비가림 재배 포장은 차광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한다.
 - 고추는 탄저병, 역병, 청고병, 진딧물 등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실시하고, 일소과, 석회결핍과 등 피해과실을 빨리 따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 - 과실(수박 등)은 잎, 신문지, 풀 등으로 가려준다.



- **[과수]**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하거나 수관 상부에 차광망을 씌운다.
 - 햇빛 데임(일소과) 증상이 많은 과원은 차광망을, 차광망이 없는 과원에서는 햇빛에 노출된 과일은 봉지를 씌운다.



- **[인삼]** 고온기 해가림 시설에 흑색 2중직 차광망을 추가로 설치하고, 측면 울타리를 개방하여 통풍을 유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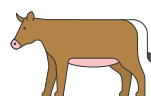


<고온기 추가 2중직 차광망 설치>



<측면 울타리 개방으로 통풍유도>

가축



- **[소]**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환기로 축사 내부온도를 낮춰주고, 사료는 소량씩 자주 급여하며, 사료조는 위생적으로 관리한다.



- **[돼지]** 지붕단열 보강 또는 지붕 위 물 뿌려주기 등으로 돈사 온도 상승을 막아준다. 사료 급여횟수를 늘려주고, 돈사주변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조성한다.



- **[닭]** 계사 천장 단열을 보강하고, 환기팬의 청소 및 상태를 점검한다.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, 시원한 물을 급여하며, 충분한 환기로 체감온도를 낮춰준다.

시설하우스 정전시 전기 구동장치(환기, 양액공급 장치 등)가 멈추면 시설 내 작물의 피해가 발생함

- 시설하우스에 원활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
- 비상용 디젤엔진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 가솔린 발전기를 구비
 - 양액공급, 관수, 환기창 개폐 등의 구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비
-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
 - 비가 오지 않을 때 : 이른 아침부터 옆 창과 천창을 열어 정전에 대비하고 밤에도 창을 닫지 않는 것이 좋음
 - 차광률이 30~50%인 차광망을 설치해 고온피해에 대비
 - 한낮에 시설 내 온도가 높을 경우 :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려 주어 온도 상승 억제



가솔린 발전기



디젤 발전기

시설하우스 농가는 여름철 정전사태에 대비해 비상용 디젤엔진 발전기나 소형 가솔린 발전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.

